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코딱지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콧구멍에 콧물과 먼지가 섞여 말라붙은 것.

문헌의 첫 기록	수록 용례	수록 내용
19세기	10개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1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코딱지'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콧구멍에 콧물과 먼지가 섞여 말라붙은 것.

코딱지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코딱지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코싹지 사전 표기 요약	—	—	—	—	●→	●→
코딱지 사전 표기 요약	—	—	—	—	—	●→
코ㅅ싹지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코싹지
  19세기20세기
- 코딱지
  20세기현재
- 코ㅅ싹지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3종
코싹지, 코ㅅ싹지, 코딱지

코딱지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코딱지’의 옛말인 ‘코싹지’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코싹지’는 ‘코’와 말라붙어 생긴 것 또는 껍질을 뜻하는 ‘싹지’가 결합한 것이다. 20세기에 된소리를 같은 글자를 반복하여 적은 ‘코딱지’가 나타난다.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20세기까지 ‘코싹지, 코ㅅ싹지, 코딱지’ 등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코딱지’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코딱지

전체 용례 10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코싹지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코싹지

출처 1897 한영자전 PART I :299

용례 01

문헌 용례

코싹지.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코싹지, 코ㅅ싹지, 코딱지 용례 9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코싹지, 코ㅅ싹지, 코딱지

출처 1921 동아일보 6월 28일 1면

용례 02

문헌 용례

福이 잇도릐도 나갈 것 가튼 코싹지만 한 캡을 쓰고.

현대어 풀이

복이 있더라도 나갈 것 같은 코딱지만 한 캡을 쓰고.

출처 1923 동아일보 12월 9일 3면

용례 03

문헌 용례

이리로 이 아니 놈을 쏘츠면 저리로 저 아이 놈이 대들면서『얘이 애꾸눈이』『얘이 곰보싹지 코싹지 어름에 잣바진 쇠눈쌀』.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5 동아일보 3월 2일 6면

용례 04

문헌 용례

보통 시에 코가 약하여 코물이 나오고 코싹지가 나오는 이는 얼는 치료를 밧을 것이며.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9 동아일보 11월20일 5면

용례 05

문헌 용례

쏘 코가 말르며 큰 코ㅅ싹지가 만히 지면서 코ㅅ물 냄새가 마치 빈대 터진 냄새 이상으로 이상하게 실로 불쾌한 악취를 내어 남의 엽헤 가기 미안할 정도에싸지 이릅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0 조선일보 2월20일 5면

용례 06

문헌 용례

손톱을 기-다라케 길러 가지고 코싹지를 우빈다 귀지를 우빈다 하는 이가 잇습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1 동아일보 3월 6일 7면

용례 07

문헌 용례

새끼 손톱을 두 치나 되게 긺어서 때때로 그것으로 코딱지를 우비어서는 딱 소리를 내이고 튀겨버리는 버릇 잇섯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3 동아일보 2월 28일 4면

용례 08

문헌 용례

장사를 하자니 미천이 업고 코싹지만 한 미천은 미쓰꼬시가 후-ㄱ 드러마시고.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6 조선일보 4월14일 4면

용례 09

문헌 용례

극히 적은 아이는 생각치도 못할 큰 코딱지가 잇서 숨소리가 쉬쉬 혹은 맥키는 때가 잇슴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8 조선일보 4월 7일 4면

용례 10

문헌 용례

이러한 코딱지만 한 집에 살면서도 상당히 조흔 체력을 지니고 사라왓습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코딱지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코딱지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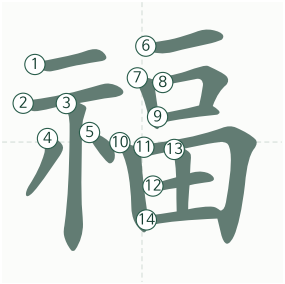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福

뜻·음 복 복

총 14획 · 부수 示





hanja.wordrow.kr/한자/福/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